

# 2018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정답

1	④	2	①	3	⑤	4	①	5	④
6	③	7	⑤	8	③	9	②	10	①
11	③	12	②	13	③	14	③	15	②
16	⑤	17	②	18	⑤	19	⑤	20	③
21	②	22	④	23	④	24	②	25	⑤
26	④	27	④	28	⑤	29	①	30	④
31	②	32	①	33	①	34	①	35	⑤
36	③	37	③	38	③	39	②	40	①
41	⑤	42	④	43	③	44	④	45	②

## 해 설

### 1. [출제의도] 계획이 발표에 반영되었는지 판단한다.

발표 계획을 적은 메모에서는 ‘전체 발표 내용 요약’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발표의 끝부분에서 전체 내용의 요약을 찾을 수 없다. 끝부분에서는 양치질 캠페인 참여율이 저조한 것을 그래프를 통해 보여 주고 이를 통해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내용의 요약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첫 문단 ‘아시다시피 ~ 있습니다.’에서 청중이 알고 있는 상황이 제시되고, 그 상황과 관련된 화제가 ‘이 캠페인과 ~ 이야기하려고 합니다.’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두 번째 문단에서 구강 질환의 발생을 인과 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세 번째 문단에서도 인과 관계를 통해 구강 미생물의 몸속 침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세 번째 문단은 ‘한국대 치의학대학원 최○○ 교수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라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마지막 문단 ‘아직 한 번도 ~ 참여하면 좋겠습니다.’와 이어지는 문장 ‘캠페인을 통해 ~ 기르시기 바랍니다.’를 통해 청중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출제의도] 발표에 쓰인 매체 자료의 성격을 이해한다.

㉠은 지난주 양치 캠페인 참여율이 전체적으로 저조할 뿐 아니라 특히 우리 반 참여율이 감소했다는 정보를 담고 있다. 이는 양치질을 소홀히 했던 우리 반의 생활 습관이 반영된 결과로, ㉠은 문제가 되는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발표자는 이를 활용하여 남은 기간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오답풀이]** ㉡ 발표자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은 평소 양치질에 소홀한 우리 반 친구들이 양치질 캠페인에도 잘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문제 해결 방안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는 캠페인 참여율이 높아지고 친구들이 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형성하는 것인데 이는 ㉠의 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다. ㉢ ㉠은 캠페인의 참석 유무를 시각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상의 원리’와는 관련성이 없다. ㉣ ㉠은 양치 캠페인의 참여율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를 통해서 자료는 작성하는 방법이나 그 자료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 ㉤ ㉠은 청중에게 발표 내용의 이해 정도를 묻는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 3. [출제의도] 발표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이해한다.

‘청자 3’은 발표를 들은 후 발표자의 비언어적, 언어적 전달 효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발표 내용과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발표에 대해 정

확하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청자 1’은 양치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을 반성하고 있다. 이는 기준에 가졌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청자 2’의 ‘학교 도서관에 ~ 자료를 찾아봐야겠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청자 2’의 ‘입안 미생물에 ~ 돼서 좋았어.’에서 알 수 있다. ④ ‘청자 3’은 양치질 외 구강 관리 방법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발표에는 빠져 있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 4. [출제의도] 대담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파악한다.

대담 사회자는 참여자 간의 의견이 달라 조정이 필요할 때 의견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담에서는 대담 참여자인 김 교수와 박 교수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

[오답풀이] ② 사회자는 첫 발언의 ‘오늘의 화제는 ‘도로 소음, 문제와 대책’으로’ 중 대담의 화제를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환경공학과 박□□ 교수님과 도시정책학과 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에서 발언자를 소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사회자는 두 번째 발언에서 김 교수, 세 번째 발언에서 박 교수, 다섯 번째 발언에서 김 교수를 각각 지정하고 있다. 전공을 고려하여 소음 저감 기술, 소음 저감의 정책적인 측면에 대해 각각 묻고 있어 대담 내용의 흐름에 맞게 발언자를 지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사회자의 ‘상시적인 도로 소음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군요.’에서, 박 교수가 도로 소음이 문제가 되는 원인으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며 이와 관련한 질문을 던져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사회자의 ‘소음 발생이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애초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에서, 박 교수가 앞서 언급한 기술적 대책 이외의 새로운 기술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출제의도] 대담 참여자들의 발언에 대해 이해한다.

박 교수는 두 번째 발언에서 소음 차단 기술로 방음벽과 방음 터널을 들고 세 번째 발언에서 그 기술들의 장점과 단점(한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김 교수가 박 교수의 의견을 듣고 기술의 한계를 언급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박 교수는 ‘소음은 수질 오염이나 대기 오염과 달리 축적되지 않고 발생과 동시에 소멸하는 특성이 있어’라고 언급하며 소음의 특성을 밝히고 있고, ‘최근 들어 차량이 증가하고 도로가 늘어나면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도로 소음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에서 도로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② 박 교수는 방음벽과 방음 터널이 가진 장단점을 각각 거론하며 소음 저감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박 교수는 저소음 포장 공법과 방음 창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각각 소음 저감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김 교수는 ‘앞서 박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저소음 포장 공법을 활용하여 도로를 포장할 경우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박 교수가 설명한 새로운 기술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6. [출제의도] 작문을 위해 떠올린 생각을 실제 작문에 반영한다.

㉠ (나)의 ‘도로 소음 문제와 관련한 라디오 대담을 듣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민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에서 자신이 대담에서 들었던 내용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나)의 ‘저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은 고속화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하루 종일 일으키는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저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에서 도로 소음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이 혼자만이 아님을 재차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 (나)에서는 필자의 제안인 ‘소음 피해를 ~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로 표현된 필자의 제안이 실현될 상황에 대한 기대 효과는 드러나 있지 않다. ㉤ (나)의 필자는 도로 소음의 원인을 ‘고속화 도로를 ~ 일으키는 소음’이라고 분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각도로 분석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7.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보완한다.

차량들이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글의 흐름상 불필요한 내용이며,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풀이] ① ㉡-1은 소음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dB 수준에 따라 제시하고 있는 자료이고, ㉢은 ‘○○동을 지나는 ~ 최대 80dB’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고속화 도로 주변의 소음이 ○○동 주민들

에게 건강상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해야겠어’는 초고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다. ㉔ ㉔-2에는 기존 방음벽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꺾임형 방음벽 기술의 효과가 제시되어 있고, ㉕에는 ‘우리 동의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고속화 도로 주변 소음 문제’라는 대답을 한 주민이 75% 이상이라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나)에서 현재 방음벽이 고층 아파트 주민에게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㉖ ㉕의 질문에 “고속화 도로 주변 소음 문제”라는 ~사람들이었음.”에서 도로 소음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나)에 제시된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뒷받침할 수 있다. ㉗ ㉕의 ‘소음 집중 ~ 지정되어 있고’에서 해당 동네가 소음 집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들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달리는 것이 소음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나)에 소음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고속화 도로를 지나는 차들이 속도 제한을 잘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다.

#### 8. [출제의도]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가)의 ㉘에 따르면 ‘하늘별’의 모집 분야를 안내하고 분야별로 요구되는 역량을 덧붙여 설명하기로 했다. (나)의 3문단에서 대본, 연출 및 편집, 연기, 소품, 촬영 담당으로 모집 분야를 구분하고 있지만, 신입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오답풀이] ㉑ 시작 부분에서 인사말을 한 후 동아리의 목적과 현황을 밝히고 있다. 1문단을 보면, ‘영화에 대한 ~ 기쁘고자 합니다.’라는 목적과 ‘올해로 6년 차’, ‘총 15명’의 부원 숫자 등의 현황을 알 수 있다. ㉒ 2문단을 보면 작년 성과를 구체적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기억의 저편’이라는 영화를 제작한 것, ‘350여 명’이 영화를 본 것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㉓ 4문단 앞부분에서 동아리 활동 시기와 활동 시간을 비교적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 동아리는 3월부터 12월까지 정기 모임을 갖는 동아리로서 평소에는 매주 1회 2시간씩, 7월과 10월에는 매주 3회 3시간씩 활동하고 있다. ㉔ 5문단에서 신청서 제출 기한이 ‘3월 15일’이고, 제출 장소가 ‘별관 4층 동아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 9.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글을 쓴다.

<보기>의 조건에 따르면 영화를 제작한다는 동아리의 특성을 언급하며 동아리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되, 대구법도 활용해야 한다. ㉕의 경우 1행과 2행이 대구를 이루고 있으며, ‘대본부터 편집까지’ 참여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동아리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마지막 행에서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을!’이라는 표현으로 동아리 가입을 신입생들에게 권유하고 있다.

[오답풀이] ㉑ 1행에서 ‘깊이 남을 명대사, 잊지 못할 명장면!’처럼 대구법을 사용하고, 2행에서 ‘만들어 냅니다.’를 강조했지만, 가입을 권유하지는 않았다. ㉒ 1행, 2행에서 대구법을 사용하며, 동아리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가입을 권유하지는 않았다. ㉓ ‘한 편의 영화를 꽃 피우기 위해’와 같이 동아리의 특성을 드러내었고, 3행에서 ‘함께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와 같이 가입을 권유하고 있지만, 대구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㉔ ‘하늘별로 오세요.’라고 말하며 가입을 권하고 있지만, 대구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동아리의 특성도 드러나지 않는다.

#### 10. [출제의도] 초고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쓴다.

2문단 뒤에 있는 ㉕는 동아리 ‘하늘별’의 성과와는 관련이 없다. ㉕는 글 전체의 주제에서 벗어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므로 3문단 끝으로 위치를 옮길 것이 아니라 삭제해야 한다.

[오답풀이] ㉑ ㉕는 잘못된 피동 표현이므로 문장 성분 간 호응을 고려하여 ‘구분하고’로 고쳐야 한다. ㉒ 3문단의 마지막 두 문장은 이유를 밝히고 그에 따른 원칙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㉑는 ‘그래서’로 수정해야 한다. ㉓ ㉕는 바로 뒤의 ‘함께하는’과 의미가 중복되므로 삭제해야 한다. ㉔ ‘별이다’는 대개 ‘일을 시작하다, 늘어놓다.’ 등의 의미이다. ‘두 팔’이 목적어일 때에는 ‘둘 사이를 멀게 하다.’라는 의미인 ‘별리다’로 표현해야 한다.

#### 11. [출제의도] 조사의 특성을 이해하고 구별한다.

보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조사이다. 하지만 ‘나는 개와 고양이를 좋아한다.’에서 ‘와’는 ‘개’와 ‘고양이’가 같은 자격으로 서술어의 목적어가 되도록 이어서 하나의 명사구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와’는 보조사가 아니라 접속 조사이다.

[오답풀이] ㉑ ‘오직 새소리만 들렸다.’에서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의 뜻을 더

해 주는 보조사이다. ② ‘시험까지 한 달도 안 남았다.’에서 ‘도’는 체언류나 부사어, 연결 어미 ‘-아/어, -게, -지, -고’ 등의 뒤에 붙어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④ ‘할아버지께서는 신문을 보셨다.’에서 ‘는’은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⑤ ‘그는 평생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다.’에서 ‘밖에’는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 12. [출제의도] 사잇소리 현상을 이해한다.

‘웃깃’은 명사 ‘웃’과 명사 ‘깃’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 명사이다. 그리고 발음은 [웁깅]으로 둘째 어근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 ‘ㄱ’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 때 나타나는 현상은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ㅌ, ㅌ), ㅂ(ㅂ, ㅍ, ㅍ, ㅍ)’ 뒤에서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인 [ㄱ, ㄷ, ㅂ, ㅅ, ㅈ]으로 각각 발음되는 된소리되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잇소리 현상의 앞 어근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뒤 어근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과는 다르다.

[오답풀이] ① ‘빨랫돌’은 ‘빨래’와 ‘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 명사로, 앞 어근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데 뒤 어근의 첫소리인 안울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는 점으로 볼 때,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③ ‘홀이불’의 발음은 [혼니불]로, 발음할 때 ‘ㄴ’의 첨가가 나타난다. 하지만 ‘홀이불’은 접사 ‘홀-’과 명사 ‘이불’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 명사이다. ④ ‘뱃머리’는 ‘배’와 ‘머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 명사로, ‘ㄹ’으로 시작하는 뒤 어근의 앞에서 모음으로 끝난 앞 어근의 끝소리에 ‘ㄴ’이 첨가된다는 점으로 볼 때,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⑤ ‘갯잎’은 ‘갯’과 ‘잎’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 명사로,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ㄴ’으로 시작되는데 앞 어근의 끝소리와 뒤 어근의 첫소리에 모두 ‘ㄴ’이 첨가된다는 점으로 볼 때, ㉠에 해당하는 예이다.

## 13. [출제의도] 피동의 개념과 제약을 파악한다.

‘돕다’는 피동사로 파생되지 않는다. ‘동생이 부모님께 칭찬을 들었다.’는 ‘들리었다(들-+-리-+-었-+-다)’로 서술어의 피동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생적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능동문이다. ‘칭찬이 부모님께 의해 동생에게 들렸다.’는 어색한 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주다’는 피동사로 파생되지 않는다.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에서, ‘잡다’는 ‘잡히다’라는 피동사가 있고,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잡-+-히-+-었-+-다)’로 파생적 피동문이 가능하다. ② ‘먹다’는 ‘먹히다’로 파생된다. ‘사람들이 열심히 풀을 뽑았다.’의 ‘뽑다’는 ‘뽑히다’라는 피동사가 있지만 ‘풀이 열심히 사람들에게 뽑혔다.’라는 파생적 피동문은 어색한 문장이 된다. ④ ‘만나다’는 피동사로 파생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벽화를 멋지게 그렸다.’의 ‘그리다’는 ‘그려지다’로 ‘-어지다’가 결합하는 통사적 피동사로 변해, ‘벽화가 학생들에 의해 멋지게 그려졌다.’라는 통사적 피동문은 되지만 파생적 피동문은 없다. ⑤ ‘나누다’는 ‘나뉘다(나누-+-이-+-다)’로 파생된다. ‘누나가 일부러 문을 세게 닫았다.’에서 ‘닫다’는 ‘닫히다’로 피동사는 존재하지만 파생적 피동문으로 바꾸면 ‘문이 일부러 누나에게 세게 닫혔다.’로 어색한 문장이 된다.

## 14. [출제의도] 명사절의 기능을 파악한다.

㉠ ‘비가 오기’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절로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여 안은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인다. ㉡ ‘집에 가기’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절로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안은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인다. ㉢ ‘그는 1년 후에 돌아오기’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절로 부사격 조사 ‘로’와 결합하여 안은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인다. ㉣ ‘어린 아이들은 병원에 가기’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절로 안은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인다. 이때 목적격 조사는 생략되기도 한다. 따라서 ㉠과 ㉢은 안은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이는 명사절이고, ㉡과 ㉣은 안은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는 명사절이다.

##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명사절을 파악한다.

중세 국어의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음/음, -기, -디’가 붙어 만들어졌다. 중세 국어의 명사절도 안은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다양한 문장성분으로 쓰였다. ㉠ ‘뽕메’는 ‘쁘-+-음+-에’로 분석되며 음성 모음 아래에서 쓰이는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된 명사절이다. ㉡ ‘부모를 현더케 흠’은 양성 모음 아래에서 쓰이는 명사형 어미 ‘-음’이 붙어 만들어진 명사절이다. ㉢ ‘본향(本郷)에 도라옴’에서는 양성 모음 아래

에서 쓰이는 명사형 어미 ‘-음’이 붙어 만들어진 명사절이다. ㉠ ‘가져 가디’는 명사형 어미 ‘-디’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절로 ‘가져 가디’는 ‘어려블썩’의 주어로 쓰였다. 그러나 ㉡는 명사절이 나타나지 않는다.

#### [16 ~ 20] (예술) 윤난지, 「현대 미술의 풍경」

이 글은 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조각과 장소의 관련성이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근대 이전에는 조각이 장소의 일부로 존재하며 그 장소의 맥락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근대에 들어서 조각은 원래의 장소로부터 분리되어 기존의 맥락을 상실했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놓여 미적 감상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19세기 이후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해져 작품 외적 맥락보다 작품 자체로 시선이 집중됐는데, 이는 특히 화이트 큐브와 받침대가 실제 장소나 현실에서 분리된 느낌을 줌으로써 가능해졌다. 1960년대의 미니멀리즘은 전시장이라는 실제 장소의 물리적 특성을 작품에 결부하여 작품과 장소 간의 관련성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을 이끌어냈다. 자연 경관 속에 작품을 만들어내는 대지 미술이 그러한 예다. 장소와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작품들은 작품과 장소, 감상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의미가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 16. [출제의도] 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한다.

이 글의 전체적 논의 대상은 조각과 장소의 관련성이다. 조각이 장소에 귀속되었던 근대 이전, 조각이 장소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근대, 조각이 미술관에 전시되어 작품 외적 맥락보다 작품 자체의 미적 특성이 강조된 19세기 이후, 1960년대의 미니멀리즘, 그 이후 장소와의 관련성을 외부 장소에서도 실현한 대지 미술의 순서로 구성되어, 시간적 순서 속에서 조각과 장소의 관련성이 변모해 온 양상이 설명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서로 다른 의견이 쟁점화된 것이 아니므로 논쟁이 벌어진 배경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 ② 일반 사회에 널리 통하는 개념을 비판하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조각과 장소의 관련성이 긴밀했느냐 미미했느냐를 대립적 요소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하나의 현상에 대한 대립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라 할 수는 없다. ④ 역사적 사건과 그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나열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17.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3문단을 보면 화이트 큐브는 출입구 이외에는 사방이 막힌 실내 공간으로, 작품을 실제적인 장소나 현실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분리된 느낌을 완화해 주었다고 설명한 ②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5문단에서 대지 미술은 대지의 표면에 형상을 디자인하고 자연 경관 속에 작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지역이나 환경 자체를 작품화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③ 2문단에서 왕권이 약화되면서 관련 장소의 권위가 퇴색하고 그 장소에 놓인 조각의 정치적 의미도 약해졌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④ 3문단에서 19세기 이후 감상자의 시선을 작품에만 집중시키는 단순하고 추상화된 작품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⑤ 4문단에서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가공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산업 재료들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의도성과 단순성을 구현’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18. [출제의도] 자료와 관련지어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보기>와 [가]의 내용으로 보아, 중세의 종교 건축물에 놓여 있던 조각상은 박물관으로 옮겨지면서 원래의 장소로 인해 지녔던 종교적 신비감이 퇴색되고 미적 의미가 부각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박물관에서 원래의 장소로 되돌아온 조각상이 건축, 조각, 회화 영역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가]와 <보기> 모두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② 박물관의 출현은 예술 작품을 기술이나 수공업의 영역이 아닌, 독자적인 예술 분야로 보게 된 인식의 변화와 맞물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③ 조각상을 감상의 대상인 ‘작품’으로 여기는 것은 조각상을 정치,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분리하여 미적 체험을 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④ 사원에서 박물관으로 옮겨지면 종교적인 인물상이 지녔던 본래의 의미는 약화되고 예술 작품으로서의 순수한 미적 의미가 부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4문단을 보면 미니멀리즘이 무의도성을 추구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위치에서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다고 기술한 ㉠은 ㉡에 대해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참고할 만한 것은, A는 조형물들 사이를 걸으며 보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와 구도를 감상했고 C 역시 방파제 위를 걷거나 육지 쪽에서 방파제를 바라보는 등의 방법으로 ㉡을 감상했다는 <보기>의 내용이다. 즉 ㉠과 ㉡ 모두 감상자가 서 있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의미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 ㉠은 미술관 안, ㉡은 호수에 위치해 있다는 단서가 제공되어 있다. ② A와 B가 서로 다른 동선으로 ㉠을 감상했다고 했으므로, 4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동선에 따라 개별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의미 형성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③ ㉡은 호수에 돌과 흙으로 나선형의 방파제를 만든 것이므로 자연 환경을 작품화한 것에 해당된다. ④ C가 실제로 ㉡의 위와 주변을 걸으면서 방파제를 감상하였는데, 이때 방파제가 놓인 호수, 또 방파제가 호수의 물 때문에 변화를 보여주는 것까지를 함께 감상한 것이므로, 작품의 의미가 감상자 및 장소와 상호 작용하여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제시된 어휘의 유의어를 파악한다.

‘출현하는’은 ‘나타나는’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어휘이다. ‘드러나는’은 ‘겉으로 나타나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는’의 뜻을 가진 어휘이므로 ‘출현하는’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퇴색하다’는 ‘희미해지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② ‘상실하다’는 ‘잃어버리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④ ‘구속되다’는 ‘억매이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⑤ ‘간파하다’는 ‘알아차리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21 ~ 23] (현대시 복합) (가) 신석정, 「지도」/(나) 손택수, 「목련 전차」

(가) 신석정, 「지도」

푸른빛과 얼룩덜룩한 빛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세계 공동체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표현한 시이다. 화자는 ‘지도’를 보고 1930년대 당시 제국주의의 현실을 떠올리고, 국경이 없는, 그리고 식민과 피식민의 구별이 없는 하나의 지구촌을 상상하고 있다.

(나) 손택수, 「목련 전차」

「목련 전차」를 떠올리며 자연과 문명, 근대 이전과 이후가 생명의 레일로 이어져 있음을 표현한 시이다. 화자는 목련의 개화를 보고 사라지지 않는 생명력을 떠올리고, 목련이 핀 전차길을 따라 나들이를 떠났던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연상한다.

21. [출제의도] 두 시의 표현상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지도’를 보면서 먼 과거에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였던 모습을 상상하며, (나)는 ‘목련’을 보고 과거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나들이에 대해 상상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는 ‘얼룩덜룩’, ‘울긋불긋’이, (나)에는 ‘찌릿찌릿’과 같은 음성 상징어가 쓰이고 있지만 시적 대상에 동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는 ‘왔단다’, ‘아니란다’처럼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나) 모두 동일한 시행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정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은 지도를 보는 시공간에서 느끼는 것이다.

22.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을 이해한다.

화자의 ‘외로움’은 현재 ‘지구가 유성처럼 화려히 떨어져 갈 날을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편 ‘지도’의 ‘울긋불긋함’은 국경을 경계로 나라들이 나누어진 것을 나타내며, 화자의 체념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1연에서 화자는 ‘바다’의 푸르른 색이 ‘국경이 있어 본 일이 없다는 / 저 하늘’을 닮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면서 이들 사이의 유사성을 인식하고 있다. ② 1~3연의 내용을 통해 화자가 ‘바다’와 ‘육지’를 대조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바다의 푸르름과 대조되는 육지의 ‘울긋불긋’함에서 제국주의 치하의 현실을 읽어내고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보기>의 설명처럼 화자는 구체적 지명인 ‘조선과 인도’를 제시함으로써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6연에서 화자는 본래는 ‘지구’가 ‘푸른’ 석류 같은 상태였다고 말하며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보기>를 고려하면 이는 인류 평화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다.

23. [출제의도] 시어를 통해 시상의 흐름을 파악한다.

화자는 ‘목련’을 근대 초기에 잠깐 등장했다 사라진 ‘전차’와 관련지어 상상하면서, 상상 속 ‘생명의 레일’을 통해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대상들도 면면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목련의 개화와 낙화는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 현상으로, 이를 통해 화자는 생명의 순환적 흐름에 주목하게 된다. ② ‘전차기지터’는 나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를 ‘나들이’라는 공통적 경험으로 이어주는 장소이다. ③ 화자는 ‘햇살’이 나뭇가지를 통해 나무 속 ‘전동기’로 연결된다고 상상하면서, 목련의 생명력을 떠올리고 있다. ⑤ ‘생명의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상상 속 ‘꽃전차’의 종착지는 부모님의 신혼

여행지이자 새로운 가족의 출발점인 ‘동래온천’을 향한다.

**[24 ~ 28] (과학, 기술) 오카타니 타카유키, 「딥러닝 제대로 시작하기」**

합성곱 신경망은 시각 피질의 신경 작용을 모형화하여 이를 수학적으로 구조화한 인공 신경망이다. 합성곱 연산은 필터를 통해 이미지의 국부 영역에 있는 특정 패턴을 검출한다. 그리고 통합 연산은 이것의 위치 정보를 축약한다. 합성곱 연산과 통합 연산을 통해 출력된 특정 지도를 전체 연결층에 입력하면 이미지 인식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24.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시각 피질의 복잡 세포는 단순 세포로부터 전기 신호를 전달받아 활성화되지만, 전체 연결층은 합성곱 신경망의 일부로 뇌의 신경 작용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통합 연산은 합성곱층의 일정 범위 내의 유닛 값들을 통합층의 하나의 값으로 통합하는 연산이다. ③ 시각 피질 세포는 단순 세포와 복잡 세포를 막론하고 수용장 내에 비춰진 특정 각도의 선분 모양의 빛에 활성화된다. ④ 합성곱 신경망은 특정 지도에 담긴 이미지 데이터의 패턴 정보를 통해 이미지를 인식한다. 따라서 이미지를 인식하게 할 수 있는 특정 패턴에 대한 정보가 특정 지도에 담겨 있어야 한다. ⑤ 합성곱 신경망은 합성곱 연산과 통합 연산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특정 지도를 출력한다.

**2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자극 3과 자극 4에 대해 세포 A와 B 모두 반응하지 않는 데 반해, <그림 1>의 (b)는 2개의 단순 세포와 1개의 복잡 세포가 반응하므로, 자극 3과 4의 실험 결과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복잡 세포는 단순 세포가 활성화될 때 활성화되므로 반응하는 빛의 각도는 같다. ② 동일한 ④ 각도의 빛에 대해 세포 A와 B는 모두 반응하지만, 세포 A는 ㉠, ㉡ 위치의 빛에 모두 반응하는 데 반해, 세포 B는 ㉢ 위치의 빛에만 반응한다. 단순 세포는 특정 위치의 빛에만 반응하는 데 반해, 복잡 세포는 수용장 내 비춰진 빛의 위치 변화에 관계없이 반응하므로, 세포 A는 복잡 세포, 세포 B는 단순 세포이다. 따라서 세포 A의 수용장이 B보다 넓다. ③ 세포 A는 각도 ㉣의 빛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④ <그림 1>의 계층 2는 단순 세포, 계층 3은 복잡 세포를 모형화한 것이다. 따라서 계층 2는 세포 B에, 계층 3은 세포 A에 대응된다.

**26.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필터의 수치를 제외한 필터의 크기와 이동 간격은 초기 설정 값이 고정되며, 합성곱 신경망의 기계 학습에 의해 스스로 갱신되지 않으므로, 필터의 크기와 이동 간격의 비율은 합성곱 신경망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면 필터의 특성에 맞게 강조된 특정 지도를 얻을 수 있다. ② 필터는 이미지 데이터의 국부 영역에 존재하는 특정한 기하학적 패턴을 검출하는 역할을 한다. ③ 합성곱 연산을 통해 이미지의 어떤 영역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추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필터를 적용하면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다. ⑤ 이미지 속 사물의 패턴에 대한 정보는 필터를 통해 합성곱층으로 출력된다.

**2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추론한다.**

[가]를 통해 합성곱층에는 이미지 인식에 불필요한 위치 정보가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합 연산은 합성곱 연산의 결과에서 위치 정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즉, 합성곱 연산을 수행한 결과에 이미지 인식에는 불필요한 위치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통합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통합 연산의 수행 이전과 이후, 이미지 인식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미지 인식을 위해 통합 연산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② 통합층의 각 유닛은 합성곱층의 각 유닛에 담긴 정보의 위치 정보만 줄일 뿐, 여전히 이미지 속 사물의 패턴에 대한 정보는 담고 있다. ③ 이미지 속 위치 정보는 일반적으로 이미지 인식에 불필요한 정보이다. ⑤ 이미지 속 사물의 패턴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합성곱 연산을 통해서 가능하다.

**2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통합 연산에 필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정 패턴을 검출할 수 있는 필터가 적용될 수 없다. 통합 연산은 패턴을 추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패턴 정보에 담긴 불필요한 위치 정보를 줄이기 위해 수행된다.

**[오답풀이]** ① ㉠은 16 유닛으로 구성돼 있고, ㉡은 64 유닛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닛 한 단위의 데이터 크기는 동일하므로 ㉠의 데이터 크기가 ㉡에 비해 작다. ② 필터의 이동 간격이 1 유닛 단위이고, 4×4 크기의 특정 지도가 추출됐다면, 한 번에 5×5 크기의 영역을 처리해야 하므로, 필터의 크기는 5×5이다. ③ 통합

연산의 규칙에 관계없이 ⑥는 16 유닛으로 구성돼 있고, ③은 4 유닛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닛 한 단위의 데이터 크기는 동일하므로 ③의 데이터 크기는 ⑥의 25%이다. ④ 최댓값 통합 규칙은 합성곱층의 일정 범위의 유닛들 중 최댓값을 도출하여 통합층의 하나의 유닛 값으로 출력하는 통합 연산의 규칙이다. ⑥의 2×2 범위 내에서 최댓값 통합을 한 경우, ⑥의 4개의 유닛 값들 중 최댓값이 ③의 하나의 유닛 값으로 도출된다.

#### [29 ~ 32] (고전소설) 작자 미상, 「숙향전」

숙향이 어려서 고아가 되고, 구출자를 만나 양육되었다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만남을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애정의 성취를 중요시했던 당대의 경향을 드러낸다.

#### 29.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랑과 숙향의 만남 과정에서 ‘마고할미’, ‘화덕진군’ 등이 조력자 역할을 한다. ‘화덕진군’은 남천문 밖에 있고, ‘마고선녀’는 천태산에 있어 인간에 내려올 일이 없다는 내용에서 이들이 비현실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비현실적 요소로서 숙향과 이랑의 만남이라는 중심 서사에 개입되어 있다.

[오답풀이] ② 인물들의 내적 독백의 형식이 쓰이지 않았다. ③ 대화나 행동으로 주로 사건이 진행되고, 해당 인물들의 구체적인 외양 묘사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첫 부분 노옹이 이랑과 대화를 하는 부분에서, 이랑이 숙향을 찾으러 여기저기 다녔음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없다. ⑤ 언어유희를 사용한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 30.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구조를 파악한다.

이랑이 황금 일정을 가지고 할미 집을 가는 것이 두 번째 만남(㉑)이다. ‘선시에 할미 이랑을 속여 보내고’와 같은 부분에서 ㉑ 이전에 ㉒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만남(㉓)에서 이랑은 할미에게 진주를 건네 준다. 전체 문맥을 통해 할미는 이랑에게 숙향과 자신의 관계를 숨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㉒에서 할미는 숙향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이랑을 속여 이곳저곳 돌아다니게 만든다. 이랑과 숙향의 만남을 일부러 늦추는 것이다. ② 이랑이 노옹을 만난 것은 ㉒와 ㉑ 사이이며, 거기서 화덕진군인 노옹이 이랑에게 마고선녀가 이랑을 속이고 있음을 알려준다. ③ ㉑에서 할미는 숙향을 ‘결인’이라 말하는 것은 이랑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의도에서이다. ⑤ ㉒에서 ㉓로 진행될수록 이랑은 숙향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게 되는데, ㉓에 이르러서는 진주를 보여 주면 만남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숙향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 3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서사의 흐름을 파악한다.

숙향이 ‘문득 난데없는 불뚱’을 보고 놀라는 장면은, 노옹의 조화와 관련이 있다. 노옹은 이랑에게 마고할미가 거짓말을 하거든 확인해 보라며 숙향이 수놓은 봉의 날개 끝을 태웠다. 이것이 숙향의 뜻밖의 시련을 겪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답풀이] ① 이랑이 노옹을 만나 할미의 말을 믿고 표진강가까지 갔는데, 이는 이랑이 숙향을 찾기 위해 순조롭지 않은 여정을 떠난 것이다. 이를 통해 이랑과 숙향의 결연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전생 일을 알고 있는 이랑이 숙향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전생에 둘이 인연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④ 이랑이 숙향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 머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이랑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숙향은 진주를 통해서 할미가 말한 인물이 이랑임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이는 징표에 근거하여 인연을 확인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 32. [출제의도]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독자의 적절한 반응을 추론한다.

이랑은 숙향과의 만남을 위해 여러 가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따라서 이랑이 숙향을 만난다면 감개무량할 것이다. ‘감개무량(感慨無量)’은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동이나 느낌이 끝이 없음, 또는 그런 감동이나 느낌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답풀이] ② ‘면종복배(面從腹背)’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 배반함.’을 가리킨다. ③ ‘의기소침(意氣銷沈)’은 ‘기운이 없어지고 풀이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④ ‘전전공경(戰戰兢兢)’은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을 뜻한다. ⑤ ‘절치부심(切齒腐心)’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을 가리킨다.



**[33 ~ 37] (사회) 이정전, 「토지 경제학」**

이 글은 지대를 잉여로 보았던 고전경제학과와, 생산에 기여한 대가로 보았던 신고전경제학과의 대립적인 논의가 마셜의 한계생산이론 안으로 수용되는 논의의 흐름을 서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그가 기존의 지대론을 정교화하고 확장함으로써, 기존의 지대론을 현대 지대론으로 이어준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33.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이 글은 지대를 잉여로 보는 고전경제학과의 관점과 지대를 생산에 기여한 대가로 보는 신고전경제학과의 관점이 마셜의 논의를 통해 수용되는 흐름을 서술하고, 마셜의 논의가 지닌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차액지대론을 설명한 부분에서 지대의 결정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현실에서 실제로 지대가 결정되는 사례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지대의 개념을 다른 생산 요소 개념과의 관계를 통해 밝힌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지대가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를 고찰하고 있지는 않다. ④ 지대론의 역사적 변천 과정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한 변천에 영향을 준 시대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신고전경제학과의 경우 지대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3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근거를 추론한다.**

글은 갑국의 지대가 비싸서 곡물의 가격이 높다고 했지만, 리카도는 차액지대론에서 곡물 가격 상승의 결과로 지대가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리카도가 갑국의 상황을 본다면, 갑국의 지대가 오른 이유는 곡물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 논리로 본다면 갑국이 곡물 수입을 재개하여 곡물의 가격이 원래 수준으로 떨어지면 지대 역시 떨어질 것이므로, 지주들만 손해를 볼 것이라는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리카도는 곡물 가격 상승의 결과로 지대가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③, ④ 리카도는 한계지가 확장되면 곡물 생산비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았다. ⑤ 리카도는 한계지가 확장되면 곡물 생산비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았다. 가격 상승이 지대 상승을 유발한다고 했으므로 리카도에 따르면 결국 곡물 생산비 상승은 지대 상승의 원인이다.

**3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를 추론한다.**

차액지대론에 따르면 어느 토지의 지대는 한계지의 곡물 생산비에서 그 토지의 곡물 생산비를 뺀 값이므로 C가 한계지가 되면 A의 지대는 3만 원, B의 지대는 2만 원이 된다.

**36.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한다.**

5단락에서 마셜이 토지를 단기적으로는 고정 생산 요소, 장기적으로는 가변 생산 요소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마셜도 클라크와 마찬가지로 토지를 생산 요소의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3단락에서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보는 리카도의 이론이 지대 전액을 조세로 걷어야 한다는 헨리 조지의 지대 조세론에 영향을 주었다는 언급을 찾을 수 있다. ② 2단락에서 리카도는 지대를 토지 생산물의 가격과 관련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단락에서 클라크는 지대를 토지로부터 얻게 되는 생산물의 생산량 증가분만큼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지대를 토지 생산물과 관련짓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5단락에서 마셜이 그가 발전시킨 한계생산이론을 바탕으로 지대를 해석했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⑤ 6단락에서 마셜이 리카도와 달리 지대를 순전히 자연의 혜택에 의한 것만으로 한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가)에서 ㉠가 추가로 빌린 공장부지는 장기적으로 보면 가변 생산 요소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정 생산 요소이다.

**[오답풀이]** ① 마셜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투입량을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는 노동력이나 자본을 가변 생산 요소로 보았다. 따라서 빵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즉각 투입한 노동자와 밀가루는 가변 생산 요소라 볼 수 있다. ② 마셜은 지대를 단기적으로는 고정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변 비용이라 보았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대도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에서 ㉠가 빵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공장 부지를 추가로 빌렸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지불하는 지대는 장기적으로는 가변 비용으로 볼 수 있다. ④ 마셜은 공장, 기계 등 고가의 자본 설비의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대가가 지대와 유사

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준지대라고 하였다. 비행기는 그 공급을 쉽게 늘릴 수 없는 고가의 자본 설비이므로 비행기 임대료는 준지대라 볼 수 있다. ⑤ 마셜은 생산자의 행위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마셜의 관점으로 (나)를 이해한다면 ㉞가 추가로 빌린 비행기의 임대료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변 비용이라 볼 수 있다.

### [38 ~ 41] (현대소설) 김승옥,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 작품은 1963년도에 발표된 김승옥의 단편 소설로, 도시(서울)에서 겪는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몇 개의 장 형식을 취하여 삽화적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제시된 글의 (가)는 소제목이 ‘프로필’이며, 서울에 사는 ‘나’에 의해 시골에서 상경한 ‘작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나)는 소제목이 ‘갈대가 들려준 이야기’이며, 도시에서 귀향한 누이의 알 수 없는 침묵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 38. [출제의도] 주어진 관점에 따라 작품의 의미를 추론한다.

(가)에서 ‘나’는 ‘작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광증’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사랑이 담긴 어머니의 편지를 찢고 어머니를 비난하는 ‘작자’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작자’가 속마음(어머니에 대한 감동)을 속이거나 감추기 위해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것으로 이해한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나’는 ‘작자’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의 둘째 문장에 열거된 행위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② ‘나’는 ‘작자’의 어머니의 편지에서 종교적 대상과 유사한 느낌을 받게 될 정도로 어머니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나)의 ‘나’는 울음을 우는 누이의 모습을 ‘괴로움을 울며’ 고통스러워하는 희생자들에 연결 지어 생각하고 있다. ⑤ ‘나’는 누이가 도시에 머물렀던 기간인 ‘2년 동안’의 기억을 토해 버리게 한 다음 ‘해풍으로 목욕시키고 싶’어 한다. 이는 누이가 도시의 부정적인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고 자신이 알던 원래의 인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39. [출제의도] 작품의 주제 의식을 추론한다.

(가)에서 ‘나’는 고향을 떠나 ‘서울을 (정확하지 못하고) 빙빙 돌아다니며 사는 놈’인 ‘작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누이는 도시에서의 기억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가)의 ‘작자’와 (나)의 누이는 도시 공간의 체험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도시 공간과 관련지어 두 인물의 모습은 ‘정상’, ‘소통’과는 거리가 먼 ‘광증’, ‘고독’의 그것이다. 이를 통해 제시된 글에서는 도시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이나 경험을 중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아울러 (가)와 (나)가 ‘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글의 독자는 (가)의 내용을 통해 (나)의 누이가 도시에서 겪었을 경험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작은 보따리’에는 누이의 ‘헌 옷 몇 벌과 두어 가지의 화장 도구’만 있었을 뿐, 누이의 침묵에 대한 가족의 의문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 ③ (나)에서 누이가 도시로 가게 된 구체적 계기는 분명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가)의 ‘나’나 ‘작자’를 통해서도 그 계기를 짐작하기 어렵다. ④ (나)에서 ‘나’와 어머니가 누이를 도시로 보낸 까닭은 ‘훈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우회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가)에서는 누이를 도시로 보낸 까닭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어렵다. ⑤ (나)에서 어머니가 누이의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내용을 (가)와 관련지어 이해하기 어렵다.

#### 40.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A]에서 ‘나’는 고향에 돌아온 누이가 침묵에 빠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누이에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 누이의 ‘작은 보따리’를 헤쳐 보기도 하며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기도 한다. ‘나’는 누이의 침묵이 ‘우리를 향한 항거’인지 ‘도시를 향한 항거’인지 물음을 던지는데, 둘 중 어느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누이의 침묵에 대한 의문은 다시 새로운 질문(‘~을 결국 도시에서 배워 왔단 말인가?’, ‘무엇으로써 설명해야 할 것인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볼 때, [A]에서는 독백적 질문이 반복되며, 누이가 침묵하는 이유에 관한 내적 탐색의 과정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서술자의 내적인 탐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간적 배경을 서술하거나 공간적 배경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③ 계절의 특징을 드러내는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④ ‘나’가 누이의 침묵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 서술 태도를 담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인물의 주관적 생각 위주로 서술되어 있어 사건에 대한 묘사가 객관적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⑤ 누이의 침묵으로 인해 인물 간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족은 누이를 위로하고 달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누이의 침묵이

갈등을 유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41. [출제의도] 인물에 관한 세부적 정보를 추론한다.**

(나)의 ‘나’는 ‘도시가 침범해 오지 않는 한’ 고향을 지키며 사는 데서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도시의 속성들을 열거하며 그것들만이 ‘인간’으로서 살 만한 세계인 것은 아니며, 도시적 삶 또는 그에 대한 동경은 허영일 수도 있는 것(‘허영이 아니냐’)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㉔에서 열거된 속성들은 누이의 울음과 침묵으로 미루어 볼 때 고향의 속성이 아닌 도시의 속성이며, ‘나’는 이를 통해 누이가 도시에서의 상처를 잊고 고향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나’는 누이의 침묵이 ‘도시를 향한 항거’인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지만, 누이의 ‘눈빛’은 ‘나’의 확신을 지지해 주지 않는다. ‘향수와 고향을 발산하는 눈빛’이나 ‘두고 온 것들에게 보내는 마음의 등불 같은 저 눈빛’으로 미루어 볼 때, 누이에게 도시에 대한 일말의 그리움이나 동경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가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② ‘나’는 도시(‘이 황혼과 이 해풍. 그들이 우리에게 알기를 강요하던 세계’)가 ‘미소를 침묵으로 바꾸어 놓는’ 세계이자, ‘우리가 만족해 있던 것(고향)을 그 반대로 치환시켜 버리는 세계’라는 인식을 드러내며, 도시와 고향을 이질적인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③ 어머니는 ‘우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표시로 되어 있는 밀국수’를 끓여서 저녁을 차리고 부드러운 태도(‘가장 부드러운 말씨와 정성어린 손짓’)로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 질문함으로써 누이가 도시에서의 경험을 털어놓도록 유도하고 있다. ④ 누이는 도시에서의 경험을 말하도록 요청 받았을 때 ‘왜 저를 태어나게 했어요.’라며 고통스럽게 반응한다. 이에 어머니가 울고 누이도 따라 운다. ‘나’는 누이가 울음을 통해 ‘미안해요, 어머니’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이해한다.

**[42 ~ 45] (수필, 고전시가 복합) (가) 장유, 「곡목설」/ (나) 허전, 「고공가」/ (다) 이원익, 「고공답주인가」**

**(가) 장유, 「곡목설」**

인간의 품성을 굽은 나무에 비유해 제시한 17세기의 한문 수필이다. ‘굽은 나무’를 보고 ‘바르지 못한 자’를 떠올린 ‘장생’의 말을 들은 ‘나’가, 나무가 상징하는 바는 인간사에 반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설파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유추의 방식을 통해 인물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들의 말이 대화 형식을 통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나) 허전, 「고공가」/ (다) 이원익, 「고공답주인가」**

허전의 「고공가」는 임진왜란 직후에 작자인 허전이 당시 신하들의 부패상을 우의적으로 비판한 교훈 가사이다. ‘고공’은 머슴이라는 뜻으로 신하들을 비유한 것이다. 나랏일을 농사일에 빗대어 당시 신하들의 무능함과 부패를 고발하고 그것을 개선하자는 내용을 주인, 즉 임금의 입장에서 노래하고 있다.

이원익의 「고공답주인가」는 임진왜란 이후 이원익이 허전의 「고공가」에 화답한 교훈 가사이다. ‘고공가’에서 집안, 즉 나랏일이 쇠락한 원인을 일방적으로 머슴, 즉 신하들에게서 찾고 있다면, 「고공답주인가」에서는 어른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한 국가의 살림살이를 농사짓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에 빗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작품들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에서 ‘장생’은 ‘바르지 못한 자가 많고 정직한 자가 적은 것이야 조금도 괴이한 것이 아니로구나.’라 하여 정직하지 못한 자가 많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정직한 자보다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더 높이 등용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나)와 (다)에서는 ‘고공’, 즉 머슴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가세가 기울게 된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머슴과 주인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는 인물의 회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에는 ‘우리 집’이 지어지고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한 시기의 과거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과거 지향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② (가)~(다)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조적 흐름을 찾아볼 수 없다. ③ (가)의 끝 부분에서는 ‘큰 집’과 ‘조정’을 사례로 들어 굽은 나무가 집짓기의 재목으로 쓰이지 않는 것과는 달리 바르지 못한 인재가 조정에 등용되는 현실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를 가상의 사례를 통해 가치관의 대립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나)에는 과거와 현재의 대조와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가세가 기울게 된 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 (다)의 서술은 세월의 흐름과 관련이 없다.

**43.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생각을 이해한다.**

‘나’는 나무와 같은 자연물과 인간사를 대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는 나무의 속성에는 곧음과 구부러짐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으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직한 것이며 정직하지 않은 자가 죽음을 모면하고 사는 것은 일종의 요행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공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즉 ‘나’는 그 속성에 곧음과 구부러짐을 포함하는 나무와는 달리 인간의 천성은 오직 정직한 데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장생’은 ‘나무’와 ‘인간’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고 있다. ‘장생’에 의하면 나무를 여러 번 보고도 그 구부러짐을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사람을 여러 번 보고도 그 실체를 짐작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② ‘장생’은 나무가 본래의 곧음에도 불구하고 곧게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타고난 성품을 굽히고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④, ⑤ ‘나’는 ‘곧은 나무’가 큰 집을 이루는 재목으로 사용되지만 ‘굽은 나무’는 보잘것없는 목수에게라도 선택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를 인간사와 대조하고 있다. 즉 나무의 경우와는 달리, 사람은 정직하면 세상에 쓰이기 어려운 반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4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의거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다)의 화자는 (나)의 화자를 청자로 상정하여 가세가 기운 것에는 주인의 탓도 있으니 어른 중을 믿고 중들을 휘어잡아 다시 가세를 일으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의 화자가 (나)에서 호명한 청자에게 자신의 발화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장생’이 굽은 나무를 보고 ‘탄식’한 내용을 ‘나’가 듣고 이에 대해 반응하면서 둘의 대화가 전개되고 있다. ② (가)에서 ‘나’는 ‘그대의 세상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네그려!’라고 하여 장생의 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고 있다. ③ (나)에서는 ‘고공’을 청자로 호명하는 화자의 말이 청자의 반응 없이 독백에 가까운 형태로 전달되고 있다. ⑤ (다)에는 (나)의 ‘새끼 꼬며 이르리라’에 대응하는 ‘새끼 꼬기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나 (나)의 ‘요사이 머슴들은 철이 어찌 아주 없어’에 대응하는 ‘철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와 같은 언급이 확인된다. 이 언급은 (다)가 (나)의 화자의 발화에 대한 반응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지가 되며, 이 표지를 통해 (나)와 (다) 사이에는 텍스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5. [출제의도] 시구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파악한다.

[B]에서 화자는 ‘밥사발 큰지 작은지 옷이 좋은지 궂은지’,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시기하는 듯’과 같이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면서, 머슴들 간의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듯’과 같은 표현은 머슴들의 행동에 대한 추측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머슴들로 인한 피해를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할아버지’, 즉 조상이 터를 닦아 이 집을 지어내 살림을 일으키고 이를 자손에게 물려주어 대대로 내려오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③ [C]의 두 행에서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가 새어 썩은 집’과 ‘옷 벗어 무너진 담’, ‘누가 고쳐 이며’와 ‘누가 고쳐 쌓을까’ 간의 대응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시적 맥락 속에서 문제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④ 화자는 ‘마노라’와 관련하여 ‘옥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리’라는 설의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 밤낮으로 ‘크게 기운 집’에 대한 걱정을 도맡고 있는 ‘마노라’의 심리적 부담감을 부각하고 있다. ⑤ [E]에서는 앞 구절의 마지막을 이어지는 구절에서 반복하여 받는 연쇄법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자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밝히고 있다.